

## 第5次 司書職 實務者 세미나 開催

日・時：1983. 9. 9～10.

場 所：忠南大學校 圖書館

〈發表要旨〉

### 大學圖書館에서의 古書收書의 實務

尹 炳 泰

忠南大學校圖書館學科 助教授

#### 머리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同學에게 뵙고 말씀드릴 機會를 가진 것을 매우 榮光스럽게 생각합니다. 本人도 서울大學校圖書館에서 約11年間 勤務한 바 있어 옛벗을 뵈어 기쁩니다.

오늘날 圖書館에서 當面하고 있는 여러 問題中에서 藏書開發의 問題는 매우 重要합니다. 藏書開發의 對象이 되는 資料의 種類는 매우 多樣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번 세미나의 主題가 되어 있는 收書中에서도 本人은 古書의 收書에 대하여 다루어 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古書라 함은 1910年 以前에 우리나라에서 著作・印刷된 冊이라고 우선 定義하고 보겠습니다.

古書의 收書에 關係되는 事項은 많이 있습니다. 例를 들어, ① 收書政策, ② 豫算管理, ③ 委員會에 관한 일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時間關係上, ① 選書業務, ② 入手業務, ③ 登錄業務의 세가지 面에 대하여 實務的인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는 實務는 제가 서울大와 高麗大의 約10年間の 經驗도 결드린 얘기임으로 參考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 1. 選書業務

〈圖書館 핸드북〉에 의하면 古書를 購入할 때에는 ① 版의 差異, ② 保存의 良否, ③ 購入時期의 適否, ④ 完本과 缺本の 與否, ⑤ 複製本の 有無, ⑥ 迅速한 注文 등을 考慮하여 選書할 것을 말하고 있다.<sup>1)</sup> 우리나라의 경우, 書名은 같으나 版本・寫本の 種類에 따라 價値의 差異가 매우 크

1) 日本圖書館協會, 編, 圖書館 핸드북, 第4版(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77), p. 148.

다. 한 例로 〈分類補註李太白詩〉의 경우 初鑄甲寅字·訓監字·嶺營版·木板本·後寫本の 價値나 價格差異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活字本이라도 1~2行을 더 植字하여 印刷한 경우도 있으므로 注意깊게 調查하여 보아야 한다. 保存狀態가 좋으면 좋을수록 冊의 缺張·오손이 없다. 冊이 缺本일 때에는 一秩을 제대로 채우기가 힘든 것이 古書라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圖書館에 같은 版本이 所藏되어 있으면 複寫하여 補充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힘들다.

圖書館의 藏書政策에 따라 다르겠지만, 複製本이 이미 나왔을 때에는 原本의 購入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圖書館은 文化財保存의 機能도 있는 터이므로 豫算만 허락한다면 原本의 구입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間或 古書店에서 目錄을 보내왔을 때, 豫算이 許諾하면 迅速하게 該當專門家에게 그 選定을 의뢰하고 購入해야 할 必要가 있다. 대개의 경우 1部(秩)정도만 있어 곧 팔려서 品切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요사히는 基本圖書나 基本文集이라 할 수 있는 古書는 대개 影印複製本으로 刊行이 된다. 대개의 圖書館에서는 그것을 利用하면 되기 때문에 古書의 原本을 사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직 複製 안된 것을 購入하는 것도 바람직 한 일이라 하겠다.

## 2. 選書의 參考文獻

古書에 밝은 司書나 書誌學者가 있다면 古書店에서 보내오는 目錄을 수시로 체크하여 두어야 한다. 仲介人이 直接 持參하였을 때에는 卽席에서 判斷하여 購入與否를 決定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간에 司書에게 必要한 것은 古書에 대한 專門的 知識과 이를 補助하는 參考文獻이라 하겠다. 古書의 參考文獻은 크게 ① 綜合書誌, ② 圖書解題, ③ 綜合目錄, ④ 大圖書館의 藏書目錄, ⑤ 冊板目錄 ⑥ 主題別書誌 및 解題, ⑦ 活字標本集, ⑧ 年表 등을 들 수가 있다. 外國의 古書는 번잡하므로 略하고, 우리나라에서의 代表的인 參考文獻만을 略記한다.

### 가. 綜合書誌

- Bibliographie Coreenne / Maurice Courant, 編, 서울 : 學文閣, 1969, 影印本, 4冊.
- 古鮮冊譜 / 前間恭作, 編, 東京 : 東洋文庫, 1944~1957. 3冊 (影印本도 있음)
- 鮮冊名題 / 前間恭作, 編. (發行事項未詳) 影印本, 15冊.
- 增補文獻備考, 卷之二百四十二~五 : 藝文考一~四. / 弘文館, 纂輯 校

正, 서울:東國文化社, 1964.(서울:亞細亞文化社, 1972. 拔萃影印  
본도 있음)

나. 圖書解題

- 韓國圖書解題 /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서울:同研究所. 1971.
- 朝鮮圖書解題 / 朝鮮總督府, 編. 京城:(同), 1919.(影印본도 있음)
- 海東文獻總錄 / 金休, 編. 서울:學文閣, 1969. 影印本
- ○章閣韓國本圖書解題, 서울大學校圖書館, 1978~現在 4冊이 刊行됨.

다. 綜合目錄

- 韓國古書綜合目錄 / 尹炳泰, 編. 서울:國會圖書館, 1968.
- 國書總目錄 / 岩波書店. 編. 東京:岩波書店, 1963~1976. 9冊(日本  
書의 綜合目錄이지만 크게 參考가 됨)

라. 大圖書館의 藏書目錄

- 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上·下〉 / 서울大學校 圖書館, 編. 서울:  
同, 1981. 2冊.
-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 文化財管理局 藏書閣 事務所, 編. 서울:(同),  
1972.
- 고서목록, 1~5 / 國立中央圖書館, 編. 서울:同館, 1970~1980. 5冊
-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古書目錄, 同館, 編. 서울:同館, 1977.
- 晚松金完燮文庫目錄 / 高麗大學校 中央 書館 編, 서울:同館, 1979.
- 韓國典籍綜合目錄, 第1~8輯 / 國學資料保存會 編. 서울:同會, 1974  
~ 1981.

마. 冊板目錄

- 韓國冊板目錄總覽 / 鄭亨愚·尹炳泰, 共編. 城南市: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 鑿板考 / 徐有渠, 編. 洪命喜 校正. 京城:大同出版社. 1941.(서울:寶  
蓮閣. 1968. 影印본도 있음)

바. 主題別書誌 및 解題

(醫學)

- 朝鮮醫書誌 / 三木榮, 編. 堺市:著者, 1956.

(經濟學)

- 韓國經濟關係文獻集成 / 韓祐勳, 編. 서울:서울大學校 東亞文化研究  
所, 1966.

(外交學)

- 韓國近世對外關係文獻備要 / 全海宗, 編. 서울:서울大學校 東亞文化研

究所, 1966.

(地理學)

- 韓國地方志綜觀 / 서울大學校 東亞文化研究所, 編. 서울 : 同所, 1974.
- 韓國古地圖解題 /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編. 서울 : 同館, 1971.
- 韓國古地圖 / 韓國圖書館學研究會, 編. 서울 : 同會, 1977.

(佛教學)

-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 東國大學校, 編. 서울 : 同校, 1976.

(辭典學)

- 韓國古辭書考 / 朴尙均, 撰. 서울 :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5. 碩士學位論文, 活字標本集
- 새 판 한국의 고활자 / 손 보기 편. 서울 : 寶晉齋, 1982.
- 韓國古活字見本帖 / 藏書閣, 編. 서울 : 同閣, 1973.
- 韓國古印刷史 / 韓國圖書館學研究會, 編. 서울 : 同會, 1976.
- 韓國古活字見本綴 / 白麟, 編 [發行事項未詳]
- 韓國古活字集 / 李潭周, 編. 서울 : 著者, 1977.

아. 年表

- 韓國古書年表資料 / 尹炳泰, 編. 서울 : 國會圖書館, 1969 및 1972.
- 韓國書誌年表 / 尹炳泰,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72.

자. 整理便覽

- 韓國古書整理法研究 / 尹炳泰 著. 서울 : 利久出版社, 1983.

3. 入手業務 (受入業務)

우리나라 圖書館에서 藏書入手의 方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① 購入入手, ② 交換入手, ③ 受贈入手, ④ 編入入手, ⑤ 保管轉換入手, ⑥ 數量更正入手, ⑦ 帳外入手, ⑧ 自體入手 그리고 一時的入手로 ⑨ 寄託을 들 수가 있다.<sup>2)</sup> 外國의 경우와 같이 納本入수를 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다. 아래에서는 古書의 入手方法에 따라 일어나는 問題를 略述할까 한다.

가. 購入入手~좀 오래된 日本의 統計이지만 古書의 購入狀況에 대한 實態 調査를 行한 日本圖書館協會가 行한 大學圖書館의 한 報告<sup>3)</sup>에 따르면 아래 表 1과 같은 結果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半數以上인 65.2%의 大學 圖書館들이 古書を 購入하고 있으며, 그 中중에서도 私立大學에서 古書を

2) 尹炳泰, “收書業務” 國立中央圖書館, 圖書業務현람 1973 (서울 : 同館, 1973) pp. 21-81.

3) 日本圖書館協會, “日本の大學圖書館における圖書選擇の實情”, 圖書館雜誌, v. 66, no. 9. (1966. 9), pp. 440 - 45.

購入하고 있는 學校가 많음을 알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現在의 所藏冊數 統計의 傾向으로 보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表 1. 圖書 購入 狀況 集計

種 \ 館種	國 立	公 立	私 立	計	比率 (%)
購 入 한  다	19	2	52	73	65.2
購 入 안한 다	6	2	7	15	13.4
其 他	0	0	4	4	3.6
無 答	5	1	14	20	17.8
計	30	5	77	112	100.0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서의 古書購入의 一般的인 節次는 다른 圖書과 마찬가지로 ① 選定圖書 明細書의 作成, ② 書店의 見積書 貼付, ③ 購入稟議書의 決裁, ④ 注文, ⑤ 納品契約(주로 指名 혹은 隨意契約), ⑥ 納品과 檢收, ⑦ 支出行爲의 過程을 거치고 있다.

選定圖書의 明細書를 만들기 前에 考慮되는 것은 藏書政策이 되겠지만, ① 書店目録에서의 選定, ② 購入希望圖書一覽表(Want lists) 接受·送付 ③ 廣告를 통한 有無의 確認등을 걸쳐, ④ 選定委員會의 通過가 있어야만 明細書를 만들수 있다고 Perez는 말하면서, 現品の 有無確認은 ① 書籍商을 通하거나, ② 競賣에 參加하거나, ③ 購買行脚(Buying Trips)하거나, ④ 地方書籍商을 活用하거나, ⑤ 個人集書의 一切購入 ⑥ 廣告등의 方式에 따라 各各 可能하다고 말하고 있다<sup>4)</sup>

古書店의 立場에서 보면, 圖書館의 購入希望圖書目録을 入手한 다음에 여러가지 方法으로 希望圖書를 差備하는 것이 原則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래의 例는 絶版本 差備의 例이지만 우리나라의 古書와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하여 引用하여 본다. Mitchell의 調査에 따르면, 286個의 美國內 및 外國書籍商에 보낸 設問에서 나온 應答에

	美國內書店	外國書店
⑦ 廣告	89店(82%)	28店(57%)

4) Ernest R. Perz, "Acquisitions of Out-of-Print Material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17, no.1, (Winter 1973), pp. 46-52.

㉔ 他書店目錄체크	82店(76%)	38店(78%)
㉕ 他書店과 書翰接觸	68店(63%)	31店(63%)
㉖ 他書店 訪問	82店(76%)	32店(65%)
㉗ 自店 在庫 供給	99店(92%)	45店(92%)
(全體數)	108店	49店

라는 數字가 나왔다.<sup>5)</sup> 美國이든 다른 나라이든간에 自店 在庫 供給의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된다.

古書의 경우에는 新刊書와 같이 定價制가 아닌 書店에서의 價格(評價)制이므로 書店에서 提示한 見積書는 一次的 價格評價의 基準이 된다. 圖書館側에서는 專門家로 하여금 그 價格의 合當與否를 包含한 鑑定書를 받아서 貼附할 必要도 생긴다. 納品된 古書를 檢收할 때에는 明細書에 明示한 版本과 版年은 確認하여야 한다. 대개의 경우, 古書는 圖書館에다 現物을 臨時로 保管하여 두고 書類節次를 進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確認過程이 省略되는 경우가 많다.

나. 交換入手~圖書館에서 古書를 交換入手한 例는 見聞하지 못하였다. 다만 複本이 많을 경우에는 그 實現이 不可能하지는 않을 것이다. 交換할 때에 等價交換을 할 것인가 아니면 等數交換을 할 것인가 하는 問題와 細細한 事業節次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略한다.

다. 受贈入手~우리나라의 경우이든 外國의 경우이든지 간에 古書의 入手行爲中 가장 많은 方式이 受贈入手가 아닐까 생각한다. 美國의 경우에는 受贈하는 相對方의 事情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Gift와 Bequest로 區分하고 있으니, 後者は 遺贈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아마도 遺言에 의해 遺言執行者가 寄贈行爲를 代行하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原來 受贈入手에 있어서는 若干의 附帶條件의 有無가 있지만, 無償으로하는것이 原則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요사히 風聞에 의하면 謝禮金品을 要求하는 有償寄贈行爲가 있다고 한다. 어느 경우인가에 따라 圖書館業務의 節次에 若干의 變異行爲가 생긴다. 受贈入手의 경우, 寄贈圖書數의 多少에 따라 節次에 약간의 差異가 생기기도 한다. 또 寄贈者가 먼저냐 아니면 受贈館이 먼

5) B. J. Mitchell, "Methods Used in Out-of-Print Acquisit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17, no. 2, (Spring 1973), pp. 212.

저나 하는 受贈行爲의 始發까지도 事務節次에 영향을 미친다.

대개의 경우 작은 集書를 受贈받는 節次는 ① 寄贈豫定者의 來訪 혹은 所藏者의 探聞과 受贈交渉, ② 寄贈依賴, ③ 圖書의 受領, ④ 寄贈 謝禮狀 發送, ⑤ 登錄, ⑥ 繼續의인 安否나 年賀狀의 發送 등을 들 수가 있다. 만일 謝禮金品을 要求할때에는 ②와 ③ 사이에 ⑦ 謝禮金額의 決定, ㉞ 豫算(特別豫算) 支出의 準備(策定), ㉟ 謝禮金의 支出·領收行爲 등을 해야 한다. 또 큰 集書를 受贈받을 때에는 앞의 節次에서 ④대신에, ⑦ 集書의 假目錄 作成, ㉞ 寄贈式의 準備(案內狀, 式順, 寄贈圖書假目錄의 配布등), ㉟ 寄贈式 舉行 등의 일과 ⑤와 ⑥ 사이에 ㉚ 文庫名의 決定, ㉛ 文庫目錄의 編纂·寄贈者에게 傳達·配布, ㉜ 文庫室·書庫別置 등의 問題가 따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寄贈式에 結들여 展示會를 여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㉝ 展示場의 準備, ㉞ 展示目錄의 準備(編輯·印刷·配付), ㉟ 展示會 開場에 따른 節次가 發生한다. 그리고 有價의 큰 集書일 때에는 ⑦ 實物의 對照·確認, ㉞ 價値評價, ㉟ 謝禮의 適定·交渉의 問題가 더 있는 대신에 寄贈式과 展示會를 略하는 경우가 있다.

라. 編入入手~거의 없으므로 略한다.

마. 保管轉換入手~圖書館에서는 古書의 保管轉換入手가 가끔 일어난다. K大의 경우 國文學科에서 受贈한 圖書를 中央圖書館으로 轉換하는 경우, S大의 경우 單科大學圖書館의 藏書를 附屬圖書館으로 또 他機關의 藏書를 奎章閣으로 轉換하는 경우가 그 例이다. 保管轉換이란 同一한 機關內에서 各 各 管理하고 있던 物品(圖書)을 한 곳으로 모아서 管理하기 위한 法行爲를 말한다. 保管轉換을 할 때에는 引繼·引受者사이에 正確한 目錄의 作成·保管이 必要하다.

바. 數量更正入手~數量更正入手란 保管上·利用上의 理由로 한 冊을 여러 책으로 分冊하거나, 여러 책을 한 책으로 合綴하는 경우에 發生한다. 古書는 原形 그대로 維持하면서 利用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때로는 元所藏者가 版本이나 價値가 다른 둘 이상의 古書를 合綴하여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分冊이 不可能한 것도 아니다. 合綴의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낱장으로된 寫本이나 文書를 成冊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사. 帳外入手~帳外入手는 古書의 경우 비교적 자주 있는 入手方式이다. 帳外受入의 發生要因을 살펴보면

① 點檢時 所在不明으로 되어 除籍한 책이 再發見되었을 때

② 貸出者가 死亡등의 理由로 返納이 不可能하여 除籍하였던 책이 다시 返還되었을 때

③ 貸出者의 亡失로 補償하였던 책이 除籍된 以後에 返還되었을 때

④ 難事故 등으로 除籍되었던 古書가 回收 되었을 때

⑤ 戰時 등의 原因으로 所有不明의 古書를 入手할 때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일단 除籍되었던 藏書들은 舊目錄番號를 抹消하고 새로이 登錄番號를 附與해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지간에 帳外入手時에 그 事由를 圖書原簿上에 記載하여 두는 것이 좋다.

아. 自體入手~圖書館. 自體에서 寫眞·複寫·複製印刷한 책을 入手하는 경우를 自體入手라 한다. 某大學의 경우 古書로 區分되어 整理하여 둔 것도 보았다.

또 圖書館에서 貴重書의 破損을 防止하면서 그 利用을 增進시키기 위한 複製本의 製作·供用도 必要한 事情이므로, 앞으로 自體入手는 계속 늘어날 것도 같다.

자. 寄託~圖書館에는 다른 藏書도 그러하지만, 특히 古書를 寄託 받아 둔 곳이 더러 있다. 예를 들어 慶北大의 遠志齋文庫가 그 예이다. 寄託圖書란 어떤 個人이나 團體가 相當量의 圖書를 期限附로 또는 無期限으로 圖書館에게 依託하여, 그 保存과 利用을 條件으로 맡긴 책들을 말한다. 그러나 그 所有權은 寄託者側에 있으며 圖書館에 없으므로 圖書館 藏書로 入手할 수는 없다. 寄託한 圖書는 대개의 경우 文庫名을 命名하여 別置하는 것이 常例이다. 圖書館의 藏書印을 捺印하지 못하는 反面 다른 모든 節次는 受贈入手에 準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寄託文庫目錄도 發刊하여 주어야 하며, 引繼·引受 目錄의 作成·節次의 正確, 點檢의 併行등이 요청된다.

#### 4. 登錄業務

여러가지 方式으로 古書를 入手하였으면, 이에 대한 物品管理(財産)上的 記錄을 하여 自己圖書館의 藏書임을 識別하도록 하는 業務가 必要하다. 이러한 業務를 登錄이라고 부르며, ① 登錄區分, ② 記帳, ③ 捺印, ④ 統計로 나누어 다루어 본다.

가. 登錄區分~登錄區分은 ㉠管理區分, ㉡入手區分, ㉢取扱區分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圖書館의 藏書를 東洋書·西洋書·古書·非古書로 區分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前述하였다. 이러한 경우를 管理



區分이라 한다. 앞3에서 다른 入手別로 區分하면 入手區分이 된다. 古書로 登錄함의 適當 與否에 따라 甲登錄 혹은 乙登錄하는 등이 取扱區分이다.

나. 記帳~記帳은 대체로 登錄簿(一名 圖書原簿)에 하는 것이 原則이다. 登錄簿는 冊子型의 帳簿가 바람직하며, 카드型은 우리나라에서는 적당치 않은 것 같다. 한 張으로 된 用紙를 써서 記帳하고 一定期間이 되면 合綴 成冊한 것이 좋겠다. 古書를 포함한 圖書들은 登錄簿에 記帳된 다음에야 비로써 整理業務를 시작할 수가 있다.

登錄簿에 記載하는 事項으로는 ①管理區分, ②入手區分, ③取扱區分, ④登錄日字, ⑤決裁欄, ⑥登錄番號, ⑦請求記號, ⑧著者·書名·版次·版種·卷冊次·出版事項 등과 같은 記述事項, ⑨價格(原價와 購入價), ⑩備考 등이 있다.(書式 1 參照)

登錄簿는 1行1番號, 1冊1番號主義가 바람직하며, 正字로 墨書해야만 한다. 圖書館에 따라서는 1行1種 多番號制가 있으나 이럴 때에는 ⑪冊數欄도 必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購入(入手)에 관한 事項을 記入하는 곳도 있으나, 이는 分離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捺印~古書에 捺印하는 印章으로는 藏書印·登錄印·隱印·文庫印이 있으며 登錄番號도 自動番號器로 찍는다.

藏書印은 方形·篆字·鑄造로 된 것을 朱色印朱로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의 크기에 따라 大·小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찍는 場所는 ㉠面紙裏面이 白紙일 때에는 그 中央部 위에서 1/3 되는 위치(그림 46 참조), ㉡本文卷之一의 第1張 앞 面 邊欄의 中央欄上(그림 47 참조), ㉢앞의 ㉣대신에 各 卷首題上部(그림 48 참조) 등이 좋겠다. 注意할 것은 印刷·筆寫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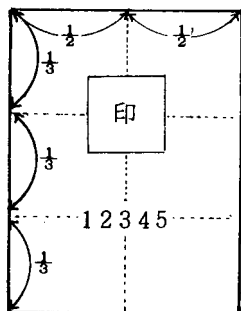


그림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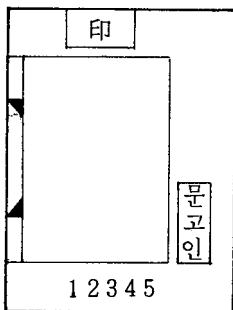


그림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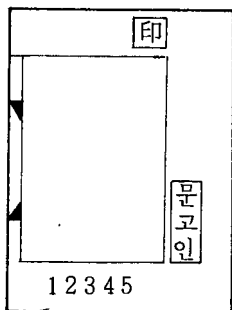


그림 48

글자를 가리지 않도록 할 일이다.

登錄印을 찍을 때에는 藏書印 ㉑의 경우가 적당하겠다. 그러나 古書에는 適當하지 않는것 같다.

隱印은 한 두곳을 定하여 小型・圓形・圓案入의 고무印으로 邊欄 左・右 側下端部 欄外에 墨印이나 監印이 바람직하다.

文庫印은 長方形・正字・고무印으로 ㉑그림 47 과 48에 圖示한 位置와 ㉒그책 가장 마지막 張 뒷面의 같은 位置에 監色으로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登錄番號는 登錄簿에 찍을 때 同時에 自動番號器를 固定하여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찍는 곳은 ㉑그림 46 과 47에 例示한 곳과 ㉒每冊의 가장 마지막 張 뒷面의 그림 47 과 같은 下部에도 더 찍는 것이 좋겠다.

라. 統計~圖書館에 入手한 古書는 그 圖書館에서 全藏書의 一部로서 統計에 集計되어야 한다. 管理區分으로서의 集計, 入手區分・取扱區分으로서의 集計도 바람직하지만, 古書의 경우에는 發行國(印刷國)別・形態別・裝訂別・言語別・刊年別, 活字本別 集計 등이 必要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統計들은 整理後에 내는 것이 매우 쉽겠다.

끝으로

以上으로서 古書收書의 實務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이러한 實務는 뒤 이어 連結되는 古書의 整理에도 影響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利用者에게 直接奉仕하는 運用面(閱覽, 貸出, 參考・書誌・情報奉仕)에 까지 影響을 준다. 그러므로 일의 始作이라 할 수 있는 收書實務부터 地盤을 다져야 하겠다.

長時間 傾聽하여 주신 여러분께 感謝드리며, 앞으로 여러 圖書館에서의 古書藏書開發에 많은 發展이 있길 빌며, 또 여러 圖書館에 所藏하고 있는 古書의 整理도 速히 끝나 古書綜合目錄의 發刊으로, 우리 民族의 典籍文化를 더욱 빛냄과 아울러 그 效用을 祈願하는 바이다.(1983. 9. 5. 稿了)

## 圖書館資料의 受入業務에 대한 考察

忠南大學校 圖書館

李 賢 雨

圖書館資料의 受入業務는 통상적인 圖書館業務中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收書業務中의 한 作業過程으로 資料의 選定作業이 끝나면 藏書의 目的으로 購入, 寄贈, 交換, 編入 等の 方法에 의하여 資料를 入受하는 것을 意味한다.

오늘날은 情報의 量的 증가뿐만 아니라 質으로도 複雜하게 變化하고 있기 때문에 現代의 圖書館은 限定된 豫算때문에 大量生産되고 있는 情報中에서 利用者에게 必要한 資料를 어떻게 選別하여 最少의 費用으로 受入하느냐 하는 문제가 重要視되었다.

現 圖書館에서의 資料受入은 주로 購入, 受贈, 交換, 納本, 編入 等으로 區分되며 各各 다른 절차와 方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現在 大學圖書館資料 受入業務上 問題點과 改善策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다.

### 1. 學位論文集 交換擴大 問題

地方國立大學에서는 共히 서울大學校나 其他 大學들의 學位論文集을 蒐集 要望하고 있으나 交換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므로 積極的인 對策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 2. 國內에 入荷되지 않은 外國圖書에 대한 受入問題

國內 代行商事を 통하여 外國에 注文時는 願하는 圖書를 만족할 만큼 蒐集할 수 없는 實情이므로 外國의 出版社나 代行商사와 直接 去來할 수 있는 共同시스템을 摸索하여 後拂條件去來線의 確保가 必要하다고 본다.

### 3. 外國學術雜誌의 결호補充問題

現在 各 圖書館에서 購讀하고 있는 外國學術雜誌가 도중사고, 또는 잘못 배달되는 등의 이유로 100% 完全到着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므로 國立大

學圖書館協議會에서 主管하여 各 圖書館에 重複到着된 雜誌를 蒐集하여 해당 圖書館에 配布하는 方案을 고려할 수 있다.

#### 4. 外國學術雜誌의 價格調査時 相互協助問題

後年度 雜誌價格調査를 정확히 하지못함으로써 業者와 不利한 契約을 체결하여 豫算浪費와 같은 問題가 發生하므로 價格情報의 相互交換과 國立大學만이라도 價格引上率의 統一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5. 國內學會誌等 非賣品資料의 蒐集問題

國內學會誌 및 其他 學術團體의 機關誌等 非賣品資料는 그 發刊機關의 주소가 자주 變動되고 利害關係의 상충等의 이유로 蒐集에 애로가 많으므로 一部 蒐集에 問題가 되는 것만이라도 影響力있는 機關이나 機構를 통하여 一括蒐集하여 配布하는 方案이 模索되었으면 한다.

## 學術論文의 蒐集方案

忠南大學校 圖書館  
安 建 植

各 大學 圖書館에서는 大學의 學問活動에 絶對的으로 必要한 資料인 각종 研究論文과 碩博士學位論文 等の 보다 용이하고 신속한 蒐集을 위하여 資料交換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 이러한 資料交換活動을 積極的으로 展開하지 못하는 關係로 利用者들에 대한 奉仕機能이 미온적인 상태이다. 그리하여 本校圖書館을 중심으로 學術資料納本과 他 大學 또는 研究機關과의 資料交換에 대한 問題點의 原因을 분석 검토하여 보았다.

資料의 納本은 所藏資料로서도 중요하지만 他大學 또는 研究機關에서 발간되는 資料의 수집에 必要한 방법으로서 資料交換에 이용되기 때문에 資料의 納本과 交換은 서로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개개의 圖書館은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의 納本과 交換에 있어서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다.

첫째 본교의 경우 제한된 納本部數로 인해 바람직한 交換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學位論文은 學位取得者 개인이 發刊費를 부담하여 발간하는 刊行物이며 圖書館 納本에 있어서도 뚜렷한 義務 規定이 없어 納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이에 대한 對策으로는 圖書館 自體內에서의 複寫, 學位取得者 개인에 대한 論文製作費 補助, 納本部數의 擴大 및 義務 規定化 등을 통해서 交換에 必要한 部數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本校에 재직하는 교수의 學位취득 論文의 納本에 있어서도 교무처와의 협조아래 義務적으로 일정부수의 納本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습 및 教授들의 研究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一般論文集과 學位論文의 發刊에 대한 情報의 부족으로 交換對象大學의 선정 및 결호 요청 등 資料蒐集活動이 매우 불편하다. 이에 대해서는 碩博士學位論文綜合目錄 및 論文集發刊內譯目錄 發刊이 시급하며 각 大學間에 論文集 發刊에 대한 情報交換方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問題點들은 各 大學圖書館의 相互協力下에 토의되고 개선되어 學問研究에 요구되는 情報化된 資料를 보다 正確하고 迅速하게 제공함으로써 圖書館 본연의 機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大學圖書館의 資料選擇에 對한 考察

忠南大學校 圖書館

金 相 泰

大學社會에서 圖書館은 各種資料의 供給處로서 學問研究의 中樞的인 支授施設의 하나이다. 이러한 機能은 科學的이고 効率的인 管理와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奉仕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하자면 高度化되어 가는 知識領域, 知識總量의 增大, 要求度의 多樣化 그리고 制限된 豫算 및 人員으로 廣範圍하고 無限量으로 增加되어가는 資料中에서 大學教育에 適合하고 合理的인 藏書構成을 위하여 어떤 方法과 節次에 의하여 選擇業務를 수행하느냐 하는 問題는 매우 重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圖書館 資料의 選擇에 對한 成功與否는 그 圖書館 保有의 資料構成과 利用者의 學習研究 및 調査에 많은 影響을 끼치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本論에서는 이러한 點을 重視하여 考察해보기로 하였고 結言에서는 大學圖書館의 資料選擇에 있어서 몇가지 問題를 提起하여 앞으로의 對策을 講究하여 보기로 하겠다.

### I. 資料選擇의 必要性

大學圖書館의 機能을 비추어 볼 때 아무리 좋은 建物에 有能한 司書가 勤務한다하더라도 學習 및 研究의 對象이 될 資料가 不足하거나 利用者가 要求하는 知識水準에 不適合하다면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圖書館은 大學의 特殊性和 與件(傳統·地域·財政等)에 따라서 必要로 하는 資料를 質的 量的으로 適切히 調整 選擇할 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 II. 資料選擇의 基準

資料選擇을 맡은 擔當司書는 언제나 細心한 注意와 公平한 判斷을 내릴 수 있는 識見을 갖추어야하지만 그것이 과연 科學的이고 經濟的이며 能率的인가 하는 것은 批判 받을 수 있으므로 資料選擇에 影響을 줄 수 있는 要素 및 다음과 같은 基本原則下에 圖書館 自體의 與件을 參酌하여 適切한

資料를 選擇해야 할 것이다.

1. 必要한 內容의 資料
2. 必要한 量의 資料
3. 長期的 必要의 資料
4. 長時保存 價値性의 資料
5. 管理 및 利用可能한 資料

### Ⅲ. 資料選擇의 方法

資料選擇은 대체로 圖書選定委員會의 活用과 더불어 利用者의 要求에 依한 選擇을 하고있다. 資料의 內容을 볼때 教授研究用 專門圖書와 學生을 爲한 課題, 指定圖書 및 定期刊行물을 들 수 있는데 資料의 質的인 面과 利用者의 水準을 고려하여 學門間的 均衡을 잘 이루어 가면서 資料選定 作業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 Ⅳ. 資料選擇의 參考資料

資料를 選擇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方法은 直接 現品을 보고 主題와 內容의 確實性을 把握한 後에 選定하는 것이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資料를 選擇해야 할 立場에서 보면 이러한 方法도 時間的 이나 人力面에서 不可能하다. 따라서 資料에 對한 情報을 얻기위하여 選擇 用 補助資料가 必要하게 되는데 그것에는 新聞, 雜誌의 廣告書評에서 出版 年鑑, 各出版社의 販賣目錄, 書店의 新着案内資料等 수많은 種類가 있다.

圖書館은 資料의 選擇을 爲하여 補助資料의 種類와 그 特徵을 充分히 理解하고 있어야 한다.

### Ⅴ. 結 論

圖書館資料는 大學人에게 有用한 것이어야 하고 學問別 均衡을 維持하여 야 한다는 점에서 圖書選定委員會를 보다 더 積極活用하는 한편 藏書構成 內容을 根據로 해서 學問別 均衡維持에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資料를 選擇 蒐集하여야 하는 最善의 方案은 正確하게 把握된 藏書

構成을 基礎로 하여야 合理的인 收書業務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圖書館이 참다운 奉仕業務를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大學人에게 有用한 資料가 確保되어 利用管理케 하여야 한다는 點에서 다음과 같은 研究 課題를 提示할 수 있겠다.

(研究課題)

1. 選擇基準의 設定問題
2. 主題나 學科別 豫算配定 問題
3. 藏書構成 比率調整
4. 圖書選定委員會의 積極活用 方案